

- 주요 뉴스: 국제유가, 중국 대규모 봉쇄조치 등으로 큰 폭 하락. 인플레이션 우려는 완화
 -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 러시아와 이견 여전하나 타협의 여지도 존재
 - 미국 2월 생산자물가 상승률, 휘발유가격 상승 등으로 높은 수준 지속
 - 중국 인민은행, 1년 만기 중가유동성지원창구(MLF) 대출금리 동결. 예상과 상이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유가 하락과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주가 상승[+2.1%], 달러화 강세[+0.1%], 금리 상승[+1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유가 하락 등으로 투자심리 개선 빅테크주가 강세
유로 Stoxx600지수는 중국의 코로나 확산과 원자재 관련주 약세 등으로 0.3%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3월 FOMC 앞두고 통화긴축 예상 등이 반영
유로화가치는 0.2% 상승, 엔화는 0.1%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금리인상 전망 등이 영향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우려 등으로 4bp 하락

※ 원/달러 1M NDF환율(1242.2원, -1.2원) 0.1% 하락, 한국 CDS 상승

		3/15일	3/14일	전일대비			3/15일	3/14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262.5	4,173.1	2.14%	국채 금리 10y	미국	2.14%	2.13%	1bp
	유럽	435.12	436.35	-0.28%		독일	0.33%	0.37%	-4bp
	중국	3,064.0	3,223.5	-4.95%	CDS 5y	한국	33bp	32bp	1bp
	일본	25,346	25,308	0.15%		중국	71bp	67bp	4bp
	한국	2,621.5	2,645.7	-0.91%	위험 지표	EMBI+	-	589	-
환율	달러지수	99.05	99.00	0.05%		VIX	29.83	31.77	-6.11%
	유로화	1.0956	1.0940	0.15%		WTI유	96.44	103.01	-6.38%
	엔화	118.30	118.19	-0.09%	원자재	구리	450.2	451.3	-0.24%
	위안화	6.3706	6.3657	-0.08%		금	1,917.9	1,950.9	-1.69%
	원화	1,242.8	1,242.3	-0.04%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국제유가, 중국 대규모 봉쇄조치 등으로 큰 폭 하락. 인플레이션 우려는 완화

- 3/15일(현지시각) 브렌트유와 WTI유의 선물가격은 각각 전일비 6.5%, 6.4% 하락한 99.91, 96.44달러로 마감. 이는 모두 2/25일 이후 최저 수준이며, 동시에 3/1일 이후 처음으로 100달러를 하회
- 이번 유가 하락은 ① 중국의 코로나 19 관련 대규모 봉쇄조치로 인한 원유수요 감소 가능성 ②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전 관련 협상 지속 ③ 이란 핵협상 타결 전망에 따른 공급 확대 기대 ④ 미국의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 제재 해제 가능성 등에 기인
- 한편 유가의 큰 폭 하락으로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기대가 높아졌고, 3월 FOMC 관련 연준의 강력한 통화긴축 시행 전망도 다소 후퇴
- UBS의 Mark Haefele는 유가 하락과 러시아우크라이나 협상에 대한 기대 등이 경제성장 관련 불안 해소에 일조했다고 평가. T.Rowe Price Group의 Tim Murray는 시장의 최우선 관심사는 여전히 연준의 금리정책이라고 분석
- 다만 일부에서는 최근의 유가 하락이 단기 현상에 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향후 전개 방향이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 또한 OPEC+ 산유국들의 공급 확대를 위한 추가 증산 여력도 제한적인 상황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 러시아와 이견 여전하나 타협의 여지도 존재

- 포돌랴크 보좌관은 양국 간 근본적인 의견 차이에도 협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 반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진지한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
- 한편 러시아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 블링컨 국무장관 등 주요 인사에 대해 러시아 입국 금지, 러시아 내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

■ 미국 2월 생산자물가(PPI) 상승률, 휘발유가격 상승 등으로 높은 수준 지속

- 해당 기간 전년동월비 상승률은 전월 대비 상승(9.7%→10.0%)했으나, 전월비 상승률은 1월 대비 둔화(1.0%→0.8%). FHN Financial은 3월의 경우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망 차질 등이 반영되면서 PPI가 큰 폭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

- **ECB 총재, 유로존 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견조하게 성장**
 - 라가르드 총재는 이번 전쟁으로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서서히 완화되고 결국 목표치(2%)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평가
 - 스페인 중앙은행 데코스 총재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제활동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한편 인플레이션의 목표치(2%) 도달 시기는 '24년이 될 것으로 전망
- **독일 3월 ZEW 경기기대지수, '91년 이후 최대폭 하락.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원인**
 - 해당 지수는 -39.3로 전월(54.3) 및 예상치(10.0)를 큰 폭 하회.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러시아 제재 등으로 독일이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 ZEW의 Achim Wambach는 특히 인플레이션 기대가 큰 폭 상승했다고 지적
- **중국 인민은행,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대출금리 동결. 예상과 상이**
 - 해당 금리를 현행 2.85%로 유지. 당초 시장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해 MLF 대출금리 인하를 전망. 이에 3/21일 발표 예정인 대출우대금리(LPR)도 동결될 것으로 예상. 한편 이날 MLF를 통해 2000억위안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고 발표
- **무디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세계적인 경제 리스크가 증폭**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가, 은행, 기업의 신용등급 하락이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 일부 신흥국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사회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경고
- **호주중앙은행 의사록, 물가상승 압력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은 신중하게 접근**
 -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로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 다만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 시각을 유지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3/15 현지시각 기준)**
 - 미국 3월 뉴욕 연은 제조업지수: -11.8, 2월(3.1), 예상치(7)
 - 중국 2월 산업생산(전년동월비): 7.5%, 1월(4.3%), 예상치(3.9%)
- **주요 경제 이벤트(3/16 현지시각 기준)**
 - 3월 FOMC, 미국 3월 NAHB 주택가격지수, 2월 소매매출 및 수입물가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러시아 경제제재 여파 회피, 연준의 효과적 대응이 중요 - The New York Times

(How Not to Have a Putin Recession)

-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의 급격한 상승이 경제불황을 초래할 가능성에 촉각. 과거 사례의 경우, 1970년대 석유파동 기간에는 심각한 경기침체가 있었지만, 2010~11년에는 경기회복을 저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 이러한 차이는 경기침체 전조 발생 시 연준의 정책 대응에 기인. 2010~11년에는 에너지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저금리 지속으로 경기회복을 견인. 유가 상승이 일시적이라면, 연준은 공격적인 통화긴축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 중국 정부, 주가 불안보다는 실물경제 안정에 초점을 맞출 전망 - 블룸버그

(China Doesn't Care If It's Uninvestable — for Foreigners)

- 최근 중국 주식에 대한 대규모 매도는 기업규제 강화,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재확산,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성장 둔화 우려에 기인. 그러나 당국은 주가의 단기 변동성 확대보다는 국내 실물경제 안정을 통한 정치적 지지 확보에 주력
- 실제로 정부는 최근 대규모 세금감면과 자가 아파트 공급 확대 등 중산층과 중소기업 지원책에 집중하는 상황. 이러한 최근 행보를 고려한다면, 정부는 주가의 큰 폭 하락을 간과할 수 있는 작은 희생으로 인식할 가능성

■ ECB의 매파적 통화정책 전환, 과잉 시장반응 초래 시 실효성은 제한적일 전망 - 블룸버그

(Market Moves Compound Risk of ECB Policy Error)

■ 러시아 자본시장의 정상화, 시장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 - Financial Times

(Fallout of Ukraine war combines the risks of past crises)

■ 일본은행, 엔화약세·유가급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물가목표 달성에 직면할 소지 - 블룸버그

(BOJ's Kuroda Risks Hitting Inflation Goal in Way He Doesn't Want)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